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83輯

창원 가음정지구 개발사업구간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7. 11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 目 次

I. 조사개요.....	3
II. 역사·고고학 분야의 조사.....	4
1. 창원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4
2. 창원시의 역사적 배경.....	5
1) 창원시의 역사개요.....	5
2) 창원시와 관련된 문헌자료.....	11
III. 조사내용.....	14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4
1) 외동 지식묘군(도기념물 제5호).....	15
2) 가음정동 지식묘.....	15
3) 가음정동 청동기시대 주거지.....	15
4) 가음정동 무문토기 산포지.....	15
5) 가음정동 삼한시대 주거지.....	16
6) 가음정동 유물산포지 및 추정 주거지.....	16
7) 가음정동 패총.....	16
8) 가음정동 삼국시대 주거지.....	16
9) 가음정동 고분군(도기념물 제126호).....	16
10) 가음정동 삼국시대 수전지.....	17
11) 성산패총(사적 제240호).....	17
12) 가음정동 조선시대 분묘군.....	17
13) 가음정동 당목.....	17
14) 金琪英永久不忘碑.....	17
2. 고고분야.....	18
3. 창원시의 사회·민속, 지명유래.....	18
1) 조사대상지역(가음정동) 개관.....	18
2) 창원시의 민속과 문화행사.....	20
3)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22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23

참고문헌.....	25
-----------	----

도판.....	2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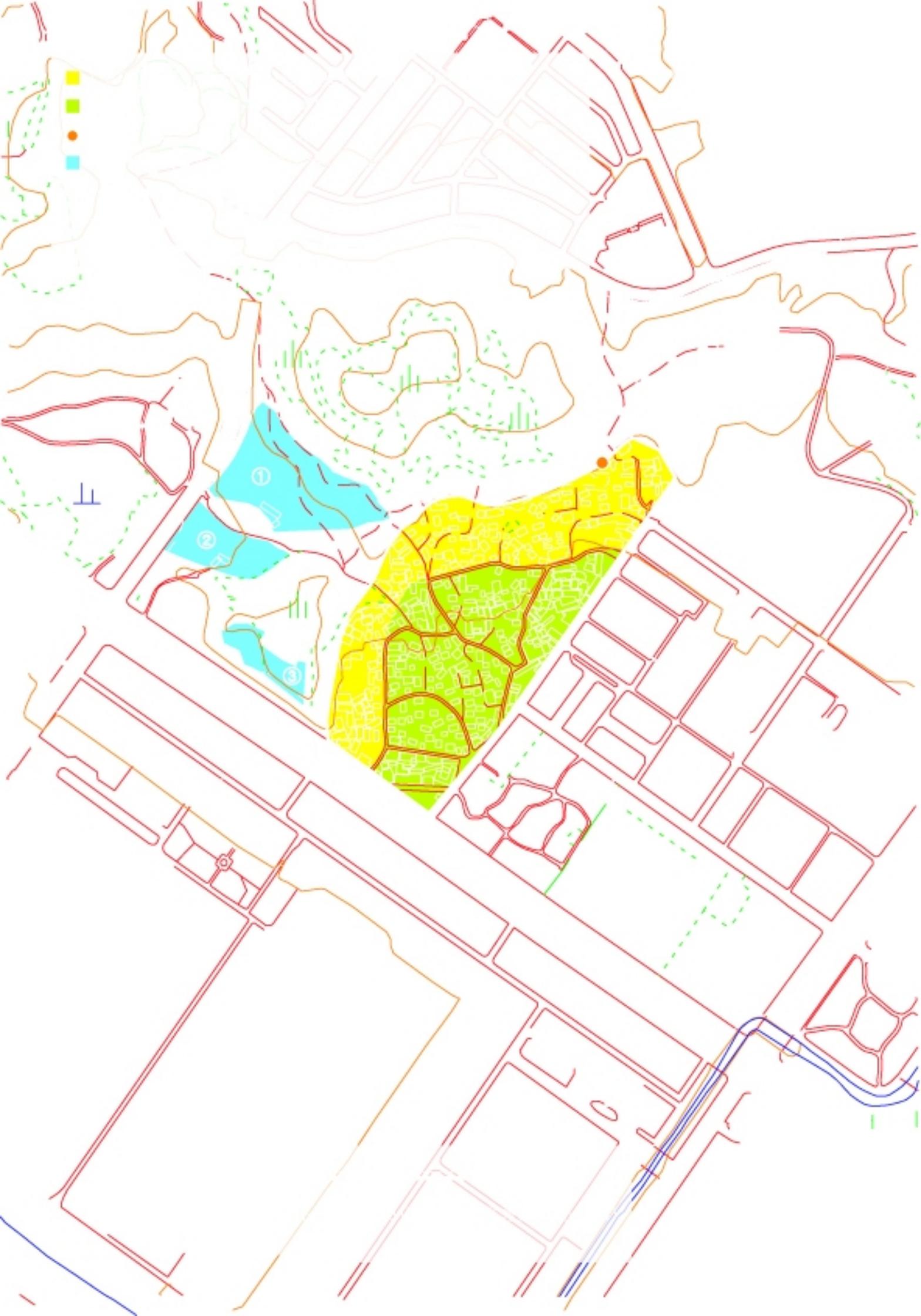
## 圖面目次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0).....	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2

## 圖版目次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북).....	29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인접 가음정동 유적군 전경(남→북).....	29
도판 3. 조사대상지역(1구역, 유물산포지) 전경(남서→북동).....	30
도판 4. 1구역내 지표수습유물.....	30
도판 5. 조사대상지역(2구역) 근경(남→북).....	31
도판 6. 조사대상지역(3구역) 당목 전경(동→서).....	31





## I. 조사개요

■ 조사명 : 창원 가음정지구 개발사업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 조사경위 :

우리 연구원은 창원시에서 추진중인 ‘가음정지구 개발사업구간’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3 규정에 의거 당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 받았다.

본 조사는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하여 문화재의 분포현황 및 매장문화재의 유존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사업대상지역내 전 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고문헌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 창원시 가음정동 623번지 일원

■ 조사면적 : 84,000㎡(25,410평)

■ 조사기간 : 2007년 11월 12일~2007년 12월 1일(착수일로부터 20일간)

- 사전조사 - 5일
- 현장조사 - 7일
- 자료분석·정리 및 보고서 작성 - 8일

■ 조사의뢰자: 창원시

■ 조사단 구성

- 조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 조 사 원 : 조상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 조사보조원 : 권귀향(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김정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어기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II. 역사·고고학 분야의 조사

### 1. 창원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창원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산시·진해시·밀양시·김해시·함안군과 인접해 있는 경상남도의 首府도시이다.<sup>1)</sup> 전체적인 지형은 小白山脈 줄기가 남으로 뻗어 내려오면서 그 세력이 점차 약해져 남해안에 이르러 크고 작은 여러 산맥들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세의 기복이 심한 편으로, 智異山의 가지인 여항산·거류산·두척산을 거쳐 소형산맥을 이루면서 분지 지형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창원분지는 북쪽으로는 북면과 낙동강을 건너 밀양시와 경계가 되는 천주산(640m), 정병산(566.7m)이 있고, 동쪽으로는 김해시와 경계를 이루는 대암산(655m), 용지봉(728m), 불모산(801.7m)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진해와 경계를 이루는 장복산(582.2m), 또 서쪽으로는 마산시·함안군과 경계를 이루는 팔용산(328m) 등이 솟아 있는데, 이들 산은 모두 해발 500~800m의 고도를 가진 노년기 초기의 산들이다.<sup>2)</sup> 그리고 구릉성 산지의 경사면 끝 자락에는 오랜 준평원화 작용에 의해 형성된 산록 완사면이 발달해 있고, 그 아래 곳곳에 小扇狀地가 분포한다. 이로 인해 동부지역은(이전 창원군 지역으로 크게 동읍·대산면·북면이 해당된다) 평야가 형성되어었다.(대표적인 경우로 대산면은 산지가 겨우 2%에 지나지 않는다)

창원시의 지질형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지질형태를 살펴보면, 그 분포상 대부분이 경상분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에 형성된 慶尙系地層에 속하는데, 慶尙累層群은<sup>3)</sup> 洛東統을 기저로 하여, 신라통과 불국사통으로 크게 구분된다. 낙동통은 경남서부의 긴 지층을 형성하며, 신라통은 경남동부에서 시작하여 경남의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는 지질구조이다.<sup>4)</sup> 이 중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지질구조는 신라통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곳 지질은 자색, 회색, 암회색 등의 니암, 사암, 빈암 및 자색 응회류암이고 서색층이 기저가 되어 있다.<sup>5)</sup> 중심을 이루는 지층은 신라통 하부에서 응회류암 및 화산퇴적물을 기반으로 하여 신라통 상부의 漸移地帶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1) 昌原市史編纂委員會, 『昌原市史』(上), 1997.

2) 昌原市·慶南文化財研究院, 『昌原加音丁洞遺蹟』, 2000.

昌原市の 지형은 이렇듯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지형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타 지역과의 교류가 한정되었던 관계로 地域民의 性格, 民俗 등 社會·文化的으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3) 慶尙累層群은 2억 3천만 년 전부터 6천 3백만 년 전까지 계속된 中生代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의 백악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 지층이 쌓인 퇴적 분지를 慶尙盆地라고 부른다.(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1-총설』, 2002)

4) 昌原市·慶南文化財研究院, 『昌原 聖住洞遺蹟』, 2003.

5) 昌原市史編纂委員會, 『昌原市史』(上), 1997.

처럼 백악기 말엽의 경상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 시기에 분출한 화산암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경남일대 유명한 온천들이 형성된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는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후대상으로는 온대계절풍 기후대와 대륙동안 기후대에 속하며 남해의 바다와 인접해 있으므로 분지형임에도 불구하고 海洋性氣候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기후구분상 남해안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대기후형에 속하나 난류의 영향으로 해양성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아열대 습윤기후에 속한다. 창원시의 기온분포를 살펴보면(최근 15년 평균), 연평균 14.7℃이며,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은 2.4℃이고, 가장 더운 8월의 평균기온은 28.2℃이다.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평균 1,370mm 정도로 남해안의 평균보다도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

창원시는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계획도시이자 산업·상업도시답게 편리하고 넓은 四通八達의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이자 상업도시인 부산과 중서부 경남 및 호남지방을 연결시켜 주는 경전철 철도와 남해고속도로, 그리고 대구와 마산을 잇는 구마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방상공업 발전 및 교역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춘 산업과 유통의 중추적인 지역이다. 창원시는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 이전 창원군의 3개 읍·면(동읍, 대산면, 북면)을 편입하여 확장되었지만,(전체 면적 291.62km<sup>2</sup>) 타 시·군과 대비해 보면 시역은 매우 좁은 편에 속한다.<sup>6)</sup> 1997년 대동제 시행 이후 현재 창원시의 행정구역은 '1읍, 2면, 24洞'과 115개 법정 洞里, 191개의 자연마을을 관할하고 있으며, 가구 수는 168,636세대에 인구는 504,758명으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이다.<sup>7)</sup>

## 2. 창원시의 역사적 배경

### 1) 창원시 歷史概要

#### (1) 先史時代부터 三國(百濟·新羅)時代까지

선사시대의 역사는 대개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적인 요소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창원분지 일대는 구석기인들에게 매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원시와 가까운 진주부근과 부산근

6) 경상남도의 20개 시·군 중에서 鎭海市(110.66km<sup>2</sup>)·統營市(233.89km<sup>2</sup>)만이 창원시 보다 면적이 작고 나머지는 창원시 보다 넓다.(경남도청 홈페이지 시군 현황자료 참조)

7) <창원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참조.

처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채집된 바는 있으나, 창원일대에서 구석기시대와 관련된 遺蹟·遺物이 발견된 바는 아직 없다. 하지만 유적이거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창원분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아서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이거나 유물을 포함하고 홍적세층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sup>8)</sup> 또한 창원을 중심으로 김해와 진해 안골포 해안 패총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고 있으며 주남저수지 주변, 합산의 패총에서도 토기 파편이 수습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창원 인근에 최소한 신석기시대부터는 인류가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창원일대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창원분지와 그 주변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고인돌(支石墓)과 취락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창원분지 내를 비롯한 동읍, 북면 등지에는 지석묘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 형태는 주로 蓋石式과 基盤式이 많이 보인다.(주류를 이루는 것은 기반식이다) 이 중 동읍 용잠일대의 지석묘군은 그 규모가 대형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창원분지 일대에서 선사시대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예가 그다지 많지 않다. 가장 빠른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덕천리유적, 남산유적, 상남선사유적이 있으며,<sup>9)</sup>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취락지와 쓰레기터가 발견되었다. 이시기의 취락지의 특징으로는 보통 평지보다 약간 높은 구릉지대나 산발치의 경사면에 조성되곤 하였는데, 삼동동유적, 도계동유적, 다호리유적, 화천리유적 등이 대표적이며, 주위에서 당시에 살던 사람이 버린 쓰레기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성산패총, 가음정패총 등 상당히 많은 패총이 확인된다. 이렇듯 취락지와 패총이 많다는 것은 곧 주거지를 동반하였음을 뜻하며, 이점은 당시에 이곳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한시대에 이르면 고대 창원지역은 弁韓지역 12국 중의 하나로 비정되기도 한다.<sup>10)</sup> 이는 곧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集團 내지 群落을 형성하고 농경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여기서 생산, 축적된 剩餘生産物들은 원시·고대사회 계급분화 및 권력형성, 나아가 소국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극히 희소하다. 3세기 중반 경 한반도 남부지방의 여러 소국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중국측 기록인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와 『後漢書』 <東夷傳>의 일부기록만이 이 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알려 주고 있을 뿐이다. 먼저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기록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일원에 산재하였던 고대 弁辰 12국에 대한 명칭들이 나열되어 있

8) 구석기인들의 문화적인 증거는 보편적으로 홍적세에 속하는 오래된 퇴적층 혹은 옛 흙속에서 발견되기 마련이다.(昌原市史編纂委員會, 『昌原市史』(上), 1997)

9) 昌原市·慶南文化財研究院, 『昌原 聖住洞遺蹟』, 2003.

10) 弁韓 12국의 위치를 비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상당히 혼란하다. 『昌原市史』(昌原市史編纂委員會, 1997)에 수록된 <표2-1-1>(p.218 참조)에서는 辰韓과 弁韓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창원 지역을 변한의 走漕馬國으로 비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後漢書』〈東夷傳〉의 기록을 살펴보면, “馬韓은 서쪽에 있고 54국이 있으며 북으로는 樂浪과 접하고, 남으로 倭와 접하고 있다. 辰韓은 동쪽에 위치하고 12국이며, 북으로 濊貊과 접하고 있다. 弁韓은 辰韓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며 남쪽은 왜와 더불어 접해 있다. 모두 78개국이다”라고<sup>11)</sup>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창원시의 지리적 위치와 견주어 보면, 이곳은 변한 12개국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그리고 삼한시대 창원일대에 강력한 정치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현재 동읍에 위치한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과 성산패총에서 발견된 제철유적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삼한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남부지방 각 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鐵’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대사회에 있어 철은 생산력의 증가 및 강력한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창원지역의 경우, 성산패총 발굴에서 중국 漢나라 때 화폐인 ‘五銖錢’이 출토된 바 있으며, 『三國志』〈魏書〉東夷傳 弁辰條의 기록에도 “弁辰제국에서는 철을 산출하여 韓人(진한과 마한) 및 東濊人과 倭人이 와서 무역해 가고 또 모든 매매에 철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마치 중국에서 전폐를 사용함과 같다. 또한 낙랑과 대방 2군에 대해서도 철을 제공하였다”라고<sup>12)</sup> 하였듯 당시 중요한 교역수단의 매개체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경상도 일대는 고대부터 철산지로서 유명하였다. 특히 경주, 울산, 안동, 용궁, 영덕, 산음, 초계 등지는 조선과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의 생산지로 지정되었으며, 각기 철장(鐵場:제련소)의 시설까지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많은 철을 생산하였다. 창원일대도 이 중 한 곳으로 철이 생산되었다는 문헌기록은 조선초기의 『世宗實錄』 여러 곳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sup>13)</sup>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도 佛母山에서 철을 생산하였다고 한다.<sup>14)</sup>

그런데 이러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유추만 가능할 뿐, 文獻上에는 고대 창원일대에 있었던 나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아직 없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사실이 있다. 고대 삼한시대에 경남지역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의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sup>15)</sup>에 대한 기

11) 『後漢書』〈東夷傳〉.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韓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12) 『三國志』〈魏書〉東夷傳 弁辰條.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13) 6년 9월, “(상략)……경상도의 김해, 창원, 대구, 안동 경내의 爐甘石을 찾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8년 3월, 호조에서 계하기를 “(상략)……경상도의 창원부에서 1백근, 황해도의 수안과 장연에서 각각 50근씩 해마다 제련하여 상납하며 창원에서 공납하는 정철 4백근, …(중략)…창원에서 나는 동으로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11년 2월, 호조에서 계하기를 “경상도의 제련은 생산지인 창원, 함안, 고성, 영산……(하략)”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光海君日記』에서도 창원에 큰 규모의 철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14)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昌原都護府〉土產條 참조.

15)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 즉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여덟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소

록이다. 그 세력이 전 남해안까지 뻗었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가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기 때문이며,<sup>16)</sup> 이를 통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내륙세력인 가야, 신라와의 대립 및 포상팔국이 신라에 병합되어 衰落하는 과정을 가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상팔국과 가야, 신라의 대립양상은 신라 奈解尼師今 때의 竭火城 전투<sup>17)</sup>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갈화성 전투 이후 경상도 일대 포상팔국의 세력이 신라나 가야에 완전히 복속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이후 통일신라까지 창원지역에 대한 언급은 文獻上에 나타나지 않는다)

## (2) 統一新羅부터 高麗時代

삼국통일 이후의 기록들은 □□三國史記□□를 비롯하여 이후 史料들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를 중심으로 창원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景德王 16년(757)에 실시한 ‘9州 5小京’의 행정구역개편 및 정비와 함께, 창원지역을 屈自郡으로 하고, 삼량주에 예속시켰다.(歎良州는 뒤에 良州로 개칭되었다)<sup>18)</sup> 당시 삼량주에 소속된 郡의 수는 屈自郡을 비롯하여 13개 郡이었으며, 당시 屈自郡에 소속된 현은 漆土縣·骨浦縣·熊只縣 3개였다.<sup>19)</sup> 명칭에 있어 동일지역 이름으로 비정되고 있는 ‘仇史郡’이란 지명이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다.<sup>20)</sup> 이후 별다른 행정개편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정체제가 통일신라 전반 및 후삼국, 그리고 고려시대 초까지 오래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羅末麗初 혼란기 때 호족세력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할거하며, 이후 후삼국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창원지역에도 進禮山城을 중심으로 옛 義安郡과 金海地方까지 확보한 豪族勢力家들이 등장하였다.(金仁匡→蘇忠子→蘇律熙의 순서이다) 이 시기 진례성은 중요한 거점이자 후백제 견훤과의 격전장이었다. 그리고 당시 창원의 별호를 ‘文昌’이라고도<sup>21)</sup> 불렀는데 이는 당대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과 관련하여 지칭된 명칭이다.

후삼국의 분열을 재통일한 고려초기에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에 12牧을 설치

국가들로 이 중 현재 이름이 밝혀진 골포국(마산만)을 비롯하여, 칠포국(진동), 고사포국(고성), 사물국(사천)의 4국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4개의 소국가들을 말한다.

16)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참조.

17) 『三國史記』 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條 참조.

18) 통일신라는 나라를 9州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良州’(이전 명칭은 歎良州)는 9州의 하나로, 지금의 경상남도 ‘梁山市’를 말한다.

19)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誌>三 地理一 義安郡條 참조.

20) 『三國遺事』 卷三 <塔像>四 南白月二聖 참조.

21) 고운 최치원은 우리나라 문장가 중의 한 사람이다. 高麗 顯宗 11년(1020),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일어난다는 예언을 최초로 한 사람이 고운이었다고 하여, 이에 諡號를 내리기로 하고, 문장가로 최고 봉이었기에 ‘文昌侯’라 追諡하였다. 그리고 최치원이 義安에서 학문에 힘쓰고 월영대를 쌓고 후학을 교육하였기에 당시 창원의 별호가 한때 문창이 되기도 하였다.

하는 행정개편을 실시하게 된다.(成宗 2년;983)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 豪族勢力들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때는 단지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독자적인 호족들을 통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成宗 14년(995)에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였으며,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道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되면서, 고려의 지방제도가 완전히 확립하게 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명칭과 행정체제에 대하여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기존의 체제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고려시대까지도 아직 ‘昌原’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成宗 2년(983)의 행정구역 개편 때는 晋州牧에 소속되었으며, 顯宗 9년(1018)에 비로소 ‘義安郡’으로 되었으며, 처음에는 金州(지금의 김해)에 예속된 후 監務가 설치되었다가, 忠烈王 8년(1282)에 義昌縣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縣守이 파견되었다. 인근 칠원현은 恭讓王 2년(1390)에 가서야 감무를 설치했고, 당시 웅신현은 아직 감무가 없었으며, 지금의 마산시인 함포현은 회원현으로 개칭된 후 현령이 파견되었다.

한편 고려시대의 창원시는 물자가 풍부한 지역으로, 조창이 설치되어 漕運制度가 운영되어 왔던 곳이다. 그런데 고려말, 특히 恭愍王代에서 禡王代에 이르기까지 倭寇의 노략질과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대담해지면서 남해안 및 심지어 내륙지방까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高麗王朝의 기저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이 때 창원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도 倭寇의 침입사태가 잦았다. 이러한 왜구의 침입사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고려말 왜구의 침범사태

시 기	침입사태	비 고
高宗 14년(1227) 5월	熊神縣 침입	소극적인 형태
忠烈王 6년(1280) 5월	고성·칠포(칠원)를 침입	
忠定王 2년(1350) 6월	함포에 침입 20여척-병영을 불태움 고성·회원 등의 군을 불태움	이후 적극적으로 변함
恭愍王 元年(1353) 9월	인근에 50여 척 침입	
恭愍王 22년(1373) 2월	龜山에 침입	
恭愍王 23년(1374) 4월	함포를 공격-350여척	최대규모
禡王 2년(1376) 11월 12월 이듬해 1,3,4,5,11월	함포에 상륙 막대한 피해를 입힘	

이처럼 심각한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려 조정에서는 대마도를 정벌하여 왜구를 퇴치하기도 하였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조선으로 이어진다.

### (3) 朝鮮 및 近·現代

조선시대에 이르러 초기에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지금의 ‘昌原’이라는 명칭이 생겼다.(太宗 8년, 1408)<sup>22)</sup> 당시 경상도는 전국의 8道 중 가장 폐합이 많았던 곳 중의 하나였다. 군현을 통폐합하는 과정이 복잡하였는데, 이러한 통폐합 과정에서 당시의 ‘義昌’(지금의 창원지역)의 <昌> 자와 ‘會原’(지금의 마산지역)의 <原> 자를 합하여 ‘昌原’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太宗 8년(1408) 8월에 義昌과 會原의 두 현을 합하여 ‘昌原’이라 개칭하고 府로 승격하였으나, 太宗 13년(1413)에 다시 都護府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宣祖 34년(1601)에 體察使 李元翼의 狀啓에 의하여 大都護府로 승격하고 判官을 파견하였다.<sup>23)</sup> 이 때 임진왜란으로 쇠잔해진 칠원현을 병합하였으나, 光海君 9년(1617)에 다시 분리, 독립하였다. 창원군의 또 다른 지역의 하나인 진해현은(이 때의 진해현은 지금의 진해시가 아니고 마산시에 편입된 진동·진전·진북의 삼진지역을 말한다) 宣祖 34년(1601) 함안군에 속했지만 光海君 9년(1617) 진해현을 설치하면서 독립하였고, 仁祖 5년(1627)에 창원에 합해진 것이다. 이후 仁祖 7년(1629) 다시 분리되어 함안군에 이속되었으나, 同王 17년(1639)에 재차 縣으로 독립하였다. 顯宗 2년(1661) 문묘의 전패가 유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 때 대도호부에서 격하되었으나, 同王 11년(1670)에 다시 승격된다. 이후 별다른 행정개편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후기까지 인근 지역들과 통합과 분리를 거치면서 陞降을 거듭하면서도 대체적으로 ‘(都護)府’라는 큰 단위의 행정체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郡으로 행정개편 되었으며, 인근 지역들과 여러 차례 개편과 편입을 거치면서 현재 창원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행정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기인 高宗 32년(1895)에 ‘23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종래의 창원대도호부는 진주부 관할 ‘昌原府’로 하고 관찰사를 파견하였다.(당시 창원·대구·동래·안동을 부로 승격하였다.)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1896)에 다시 ‘道體制’가 부활되며 이때 ‘慶尙南道 昌原郡’으로 행정개편 되면서, 부내·동면·상남·하남·내서·외서·북면의 7개 面을 관할하게 되었다.<sup>24)</sup> 이후 대한제국 光武 3년(1899) 마산항의 개항에 따라 창원군이 ‘창원부’로 승격되었으며, 光武 7년(1903)

22) ‘昌原’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금의 창원시와 마산시 두 지역의 이름을 하나씩 딴 합성어이다. 지금의 창원시 일원은 ‘義昌’으로 불렸고, 마산시 일원은 ‘會原’으로 불렸는데, 조선 太宗 8년(1408) 의창의 ‘昌’ 자와 회원의 ‘原’ 자를 따서 ‘창원’으로 불렸던 것이다.(『輿地圖書』 <昌原>, 『嶺南誌』 卷之七十一 <昌原郡> 및 여타 문헌자료 참조)

23) 壬辰倭亂 당시 관원이나 백성들이 시종 종군하였으며, 왜군에게 투항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大都護府’로 승격시켰다고 한다.(『輿地圖書』 <昌原大都護府> 建置沿革條 참조.)

24) 昌原市史編纂委員會, 『昌原市史』(上), 1997.

에는 창원부를 다시 ‘창원군’으로 고쳐 불렀다. 光武 10년(1906)에 창원군의 격을 높여 창원부로 개칭하고 칠원군의 구산면, 김해의 대산면을 편입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창원부를 ‘馬山府’로 고쳤으며, 1914년의 군·면통폐합 조치 때 동면을 비롯한 15개 면이 창원군으로 분리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1973년 창원군의 창원, 상남, 웅남면이 마산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80년 마산시의 의창동을 편입하여 비로소 창원시가 설치되었으며, 창원군의 나머지 지역은 의창군으로 바뀌었다. 1983년 경상남도청이 부산광역시에서 창원시로 이전, 명실공히 경상남도 행정의 중추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95년 동면·북면·대산 3개 면을 통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원시는 역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산시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두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서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둘이 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이후 구한말까지 ‘昌原’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되어 있던 두 지역이 지금처럼 창원시와 마산시로 나뉘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후의 일이다.<sup>25)</sup>

## 2) 창원시와 관련된 문헌자료

이상에서 언급된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역사관련 文獻資料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史料 1 :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 已柢國 不斯國…(중략)…弁韓과 辰韓은 도합 24국이 된다. 큰 나라는 4~5천 家, 작은 나라는 6~7백 家로 총 4~5만 호이다……(하략).<sup>26)</sup>

史料 2 :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 14年

奈解尼師今 14年(209) 가을 7월, 바닷가의 여덟 나라가(浦上八國) 연합하여 가라를 공격하니, 가라는 신라에 왕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于老와 이별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은) 출격하여 8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 6천여명을 잡아 돌아 왔

25)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경상남도 연구』, 1997.

26)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柢國 不斯國…(중략)…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하략).

다.27)

史料 3 : 『三國史記』卷34 <雜誌>3 地理1 義安郡

義安郡은 원래 屈自郡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漆隄縣은 원래 漆吐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漆園縣이다. 合浦縣은 원래 骨浦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熊神縣은 원래 熊只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28)

史料 4 : 『三國史記』卷48 <列傳>8 勿稽子

(상략)…… 그 뒤 3년이 지나서 骨浦, 柒浦, 古史浦 등 3국이 竭火城을 공격하였는데 왕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구원하였다. 3국의 군대는 크게 패하였다……(하략)29)

史料 5 : 『三國遺事』卷3 <塔像>4 南白月二聖

白月山 두 성인의 成道記30)에서 이르기를 백월산은 신라 仇史郡의 북쪽에 있는데, 옛날 신라의 屈自郡이요 지금의 義安郡이다 산봉우리들이 기이하고 빼어나며 자리 잡은 넓이가 수 백리에 뻗쳐서 참으로 큰 鎮山이라 할 만하다……(하략)31)

史料 6 : 『高麗史』卷1 <太祖世家>1 庚辰

庚辰 3년(920) 겨울 10월 甄萱이 신라를 공격하여 大良과 仇史 두 군을 탈취하고 진례에 이르렀다. 신라가 아찬 김을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자 왕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게 하였다. 견훤이 이것을 듣고 물러났다.32)

史料 7 : 『高麗史』卷57 <志>11 地理2

27) 『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二 奈解尼師今 十四年.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滄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28) 『三國史記』卷三十四 <雜誌>三 地理一.

義安郡 本屈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嶺縣三 漆隄縣 本漆吐縣 景德王改名 今漆園縣 合浦縣 本骨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熊神縣 本熊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29) 『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

(상략)……後三年 骨浦 柒浦 古史浦 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하략).

30) 成道는 불교교리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의미이고, '成道記'는 그 전말을 쓴 기록이다.

31) 『三國遺事』卷三 <塔像>四 「南白月二聖」.

白月山 兩聖成道記云 白月山在新羅仇史郡之北 古之屈自郡 今義安郡 峯巒奇秀 延袤數百里 眞巨鎮也……(하략).

32) 『高麗史』卷一 <太祖世家>第一 庚辰.

庚辰三年冬十月 甄萱侵新羅 取大良仇史二郡 至于進禮郡 新羅遣阿榮金律來求援 王遣兵救之 萱聞之引退.

義安郡은 원래 신라 屈自郡인데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顯宗 9년(1018)에 본 주에 소속시켰고 후에 監務를 두었으며, 忠烈王 8년(1282)에 元나라 世祖가 東征할 때 도와준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義昌으로 고쳐서 縣令으로 승격시켰다. 檜山이라고도 부른다.<sup>33)</sup>

史料 8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昌原都護府>

동쪽으로 金海府 경계까지 23리이고, 남쪽으로 熊川縣 경계까지 33리이다. 서쪽으로 咸安郡 경계까지 37리이고, 漆原縣 경계까지 33리이며, 북쪽으로 같은 현 경계까지 32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844리이다.

[建置沿革] 義昌縣은 본래 신라 屈自郡인데 景德王이 義安으로 고쳤다. 會原縣은 본래 신라 骨浦縣인데, 景德王이 合浦라 고쳐서 義安군에 예속시켰다. 고려 顯宗 때에는 義安·合浦를 함께 金州(지금의 김해)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監務를 각각 설치하였다. 忠烈王은 元 世朝가 일본을 정벌 할 때에 軍糧 등을 공급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賞으로써, 義安을 義昌으로, 合浦를 會原으로 개칭하고 아울러 現令으로 승격하였다. 本朝 太宗朝에서는 두 현을 합쳐서 지금 명칭으로 고치고 府로 승격시켰다가 뒤에 都護府로 고쳤다.

[郡名] 굴자·의안·의창·회산·골포·합포(합이 蛤으로 된 곳도 있다)·회원·환주.

[山川] 檐山 : 부 북쪽 1리 지점에 있으며 鎭山인데, 서쪽으로 靑龍山과 연결되었다...(중략)...佛母山 : 부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簾山 : 부 동쪽 25리에 있다...(중략)...斗尺山 : 회원현에 있으며, 봉우리 위에 孤雲臺가 있는데, 月影臺 북쪽 5리 지점에 있다...(중략)...馬山浦 : 회원현에 있다. 猪島 : 월영대 남쪽에 있다. 合浦 : 부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

[土産] 철 : 佛母山에서 산출한다.

[城郭] 읍성 : 石築이며, 둘레가 4,920척이다. 우물 하나, 못 하나가 있다.

[關防] 右道兵馬節度使營 : 옛 합포현에 있으며, 부와의 거리는 13리이다. 석성이며, 둘레는 4,291척, 높이는 15척이고 營안에 우물 다섯이 있는데 裴克廉이 쌓은 것이다.

[烽燧] 城隍山烽燧 : 부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동쪽으로 웅천현 高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칠원현 安谷山에 응한다. 餘音浦烽燧 : 동쪽으로 웅천현 沙火郎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같은 현의 高山에 응한다.

[學校] 鄉校 : 부 북쪽 1리 지점에 있다.

[佛宇] 鳳林寺 : 鳳林山에 있다. 신라 執事侍郎 崔仁滾이 지은 승 眞鏡의 塔碑가 있다. 匡山寺·滿月寺 : 모두 두척산에 있다.

[祠廟] 사직단 : 부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부 북쪽 檢山에 있다. 여단 : 부 북쪽에 있다.

33)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義安郡 本新羅屈自郡 景德王改今名 顯宗九年來屬 後置監務 忠烈王八年 更名義昌 陞爲縣令 以賞元世祖東征供億之勞 別號檜山.

[冢墓] 崔潤德 묘 : 부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sup>34)</sup>

史料 9 : 『慶尙道邑誌』 <昌原府邑誌>(1832년 판)

[建置沿革] 의창현은 본래 신라 굴자군이다...(중략)...本朝(조선) 太宗朝 때 두 현을 합하여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서 府로 승격시키고 후에 都護府로 하였다.....(하략).<sup>35)</sup>

### Ⅲ. 조사내용

#### 1. 調查地域 및 周邊의 文化財 現況

창원분지에는 남산동·가음정동·사과정동·외동·창곡동 등 대소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해 있는데 이러한 구릉성 산지가 입지한 곳에 대부분의 유적이 확인된다.

남산동 유적에는 청동기시대의 환호와 주거지, 그리고 삼한시대 패총 등이 조사되었으며, 내동유적에는 고분군 뿐만 아니라 패총, 취락지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외동 성산유적에는 청동기시대 취락과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패총과 취락지가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대상지역인 가음정동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먼저 청동기시대유적으로는 상남동지석묘<sup>36)</sup>와 환호유적<sup>37)</sup>이 조사되었을 뿐만

34)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昌原都護府>.

昌原都護府 : 東至金海府界二十三里 南至熊川縣界三十三里 西至咸安郡界三十七里 至漆原縣界三十三里 北至同縣界三十二里 距京都八百四十四里.

[建置沿革] 義昌縣 本新羅屈自郡 景德王改義安 會原縣 本新羅骨浦縣 景德王改合浦屬義安郡 高麗 顯宗時 義安合浦俱屬金州 後各置監務 忠烈王 以賞元世祖東征供億之勞 改義安爲義昌 合浦爲會原 竝陞縣令 本朝 太宗朝 合二縣 改今名陞爲府 後改都護府.

[郡名] 屈自 義安 義昌 檜山 骨浦 合浦(合作蛤) 會原 還珠.

[山川] 檜山 : 在府北一里 鎮山 西連靑龍山...(중략)...佛母山 : 在府南三十里 簾山 : 在府東二十五里..... 斗尺山 : 在會原縣 峯上有孤雲臺 在月影臺北五里...(중략)...馬山浦 : 在會原縣 豬島 : 在月影臺南 合浦 : 在府西十里.....(하략).

[土産] 鐵 : 出佛母山.

[城郭] 邑城 : 石築周四千九百二十尺 內有一井一池.

[關防] 右道兵馬節度使營 : 在古合浦縣 距府十三里 石城周四千二百九十一尺 高十五尺 內有五井 裴克廉築.....(하략).

[烽燧] 城隍山烽燧 : 在府西十五里 東應熊川縣高山 北應漆原縣安谷山. 餘音浦烽燧 : 東應熊川縣沙火郎山 北應同縣高山.

[學校] 鄉校 : 在府北一里.

[佛宇] 鳳林寺 : 在鳳林山 有新羅 執事侍郎崔仁滾撰 僧眞鏡塔碑. 匡山寺 滿月寺 : 俱在斗尺山.

[祠廟] 社稷壇 : 在府西 文廟 : 在鄉校 城隍祠 : 在府北檢山 厲壇 : 在府北.

[冢墓] 崔潤德墓 : 在府北二十里.

35) 『慶尙道邑誌』 <昌原府邑誌>.

[建置沿革] 義昌縣 本新羅屈自郡...(중략)...太宗朝 合二縣改今名 陞爲府 後改都護府.....(하략).

36)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창원상남선사유적』

아니라 당산이 위치한 구릉과 저지대에 입지한 곳에 삼한시대 취락과 삼국시대 수전지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와 폐총은 동쪽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고, 고분군은 서쪽 구릉의 말단부에 조성되었으며 그 아래의 저지대에 수전지가 입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같이 본 조사대상지역 주변으로는 선사시대 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가음정동인들의 생활상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 1) 외동 지석묘군(도기념물 제5호)

이 지석묘는 창원남중학교 교정에 위치하는 개석식지석묘로 당산의 서쪽 구릉에 해당하는 지점에 입지한다. 현재는 이미 삭평된 대지상에 위치하지만 원래의 구릉은 서쪽으로 더 발달되었던 것으로 지석묘의 위치는 대지상에 입지하게 되어 주변 지역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292cm, 너비 20cm, 두께 135cm 정도이며 장축은 북서-남동, 석재는 백운모화강암체이고 상면에는 6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다. 이 곳에서 일제강점기이후 마제석검을 비롯한 동검과 토기편 등이 여러 유구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지석묘들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 2) 가음정동 지석묘

가음정동 당산 북쪽 소구릉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1993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석의 크기는 길이 280cm, 너비 210cm, 두께 80c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남-북향이고 상면에는 10개 정도의 성혈이 새겨져 있다. 하부구조는 지하식의 석곽으로 내부에서 무문토기저부편과 단도마연토기편이 소량 검출되었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240cm, 너비 75cm, 두께 50cm 정도이다.

### 3) 가음정동 청동기시대 주거지

가음정동 589번지, 602번지 일대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며 1994년 긴급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편과 석부, 석착 등이 검출되었다.

### 4) 가음정동 무문토기 산포지

상남아파트와 남고등학교를 연결되는 도로부지에서 무문토기 저부와 토기편이 소

37) 창원대학교박물관, 1997, 『창원의 선사·고대취락』

량 수습되었다. 출토유물로 미루어 보아 청동기시대 중반에서 후반대로 편년된다.

#### 5) 가음정동 삼한시대 주거지

가음정동 607번지 일원 창원대로변 북쪽의 독립 구릉 상부에서 해당하는 곳으로 2006년에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한시대 주거지 34기가 조사되었다.

#### 6) 가음정동 유물산포지 및 추정 주거지

당산(해발 73.5m) 정상부와 남·동쪽 구릉 일대에 입지한다. 이 일대는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곳곳에 현대묘가 형성되어 있다. 구릉 정상부에서 적갈색 연질토기편 및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7) 가음정동 패총

본 유적은 당산을 중심으로 북쪽 사면을 제외한 동쪽, 서쪽, 남쪽에 입지한다. 정상부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패총은 1990·1991년도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4세기경에 조성된 환호와 4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으로 적갈색 연질토기, 회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등으로 분류되며, 적갈색 연질토기의 기종은 주로 생활용기로서 옹과 시루 등이다.

#### 8) 가음정동 삼국시대 주거지

가음정동 589번지, 602번지 일대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1994년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수혈주거지와 고상가옥으로 대별되며, 수혈주거지는 평면형대가 원형·방형·장방형이다. 고상가옥은 정면 3칸×측면 3칸이며 그 주변으로 소규모 보조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 9) 가음정동 고분군(도기념물 제126호)

당산의 서쪽 해발 57.8m의 야산 정상부에서 남쪽 사면을 따라 고분군이 입지한다. 1990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광목곽묘와 석곽묘, 옹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고배, 잔, 향아리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부, 도자 등이 검출되었다.

## 10) 가음정동 삼국시대 수전지

본 유적은 가음정동 583-2, 587, 588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1994년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유적은 삼국시대의 수전지로 배수로 및 사람 발자국, 소 발자국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607번지 일대는 구릉 곡간부에 해당되는데 2006년도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기대의 수전지 및 우물 그리고 다수의 주혈 등 조사되었다.

## 11) 성산패총(사적 제240호)

가음정동 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이격된 곳에 본 유적이 입지한다. 패총은 산의 계곡마다 1개소 이상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 동구, 서남구, 북구 패총만이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 동구 패총은 무문토기 문화층과 삼한시대 문화층으로 나누어지며, 서남구 패총은 무문토기시대 문화층과 삼국시대문화층이 형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각종 토기류와 오수전·화천 등으로 漢과의 교역을 시사하는 중요한 유물이 검출되었다.

## 12) 가음정동 조선시대 분묘군

가음정 본동의 배후구릉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2006년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시대 분묘 108기가 조사되었다. 분묘는 매장 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크게 탄곽묘·회곽묘·토광묘로 나눌 수 있으며, 출토유물로는 자기류 및 청동합, 청동시저, 장신구류, 철제가위, 동전, 관정 등이 출토 되었다. 이밖에 청동기시대 분묘 2기, 삼국시대 분묘 2기, 삼국시대 토기가마 1기, 고려시대 분묘 3기가 조사되었다.

## 13) 가음정동 당목

당산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는 포구나무로 가음정 본동마을의 수호신역할을 하였다고 구전된다. 나무의 크기는 둘레 8m, 높이 20m 정도이며,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수령이 500년 정도라고 전한다.

## 14) 金琪英永久不忘碑

창원기능대학교 APT의 서쪽 100m 지점에 비석이 위치하였으나, 현재 가음정 본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의 체육공원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정면에는 ‘士人金琪英永久

不忘碑'라고 음각되어 있고, 戊長年 11월에 세워졌다고 한다. 보호각의 전체 높이는 226cm, 지붕의 너비는 242cm, 기둥 높이 200cm이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190cm, 비신 높이 138cm, 비신의 두께는 21cm 이다.

## 2. 고고분야

조사대상지역은 창원시 가음정동 623번지 일원으로 창원시에서 주택난 해소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곳이다. 조사지역은 가음정동 당산(해발 73.5m)과 해발 40m 내외의 저구릉성 산지가 발달해 있고, 조사대상지역 본동마을을 包谷한 지형으로 남과 동으로는 각각 창원대로와 APT 단지가 위치한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한 조사는 1999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지역은 현재 형상이 변경되어 주택으로 변모되었으나 가음정동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입지해 있으므로 본 조사대상지역 또한 주택 하부에 다양한 유적이 유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금번,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구간의 면적은 84,000㎡(25,410평)이다. 지표조사는 철거예정 주택밀집지역으로 현장조사는 철거된 주택 및 지표가 노출된 지역과 구릉부를 중심으로 전 구간을 도보로 진행하였다. 먼저, 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유구나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으나 주변일대에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복합유적군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대상지역의 북쪽에 연접하여 가음정동 유물산포지 및 패총이 위치하며, 서쪽 뒤편으로는 2006년도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삼한시대 주거지군, 삼국시대 수전 및 조선시대 분묘군이 입지해 있음으로 현재 철거가 진행중인 주택 하부에는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산과 연결된 북쪽 구릉과 서쪽 독립 구릉 말단부에서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 기편 및 조선시대 백자편과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이 유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의 북동쪽에는 수령 500년으로 전해지는 가음정동 당목이 있으며, 당목에서 남서쪽 약 500m지점에 위치하였던 金琪英永久不忘碑는 현재 가음정동 본동마을의 개발예정지로 인하여 인근의 가음정동 체육공원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 3. 창원시의 사회·민속, 지명유래

### 1) 조사대상지역 개관(가음정동)

금번 조사는 ‘창원 가음정지구 개발사업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사지역은 ‘창원시 가음정동 623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 면적은 84,000㎡이다. 이곳의 자연·인문·역사적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加音丁洞은 창원시 남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1974년 산업개발 기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개발로 조성된 공단지역과 대단위 주거밀집이 조화를 이룬 전형적인 도심지역이기는 하지만 미개발지역인 자연마을들도 병존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전체면적은 3.48km<sup>2</sup>이며, 가음정, 대방, 가음, 남양 4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16,062가구에 인구는 52,095명이다.<sup>38)</sup> 이 지역의 문화재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가음정동 문화재 현황<sup>39)</sup>

연번	명칭	소재지	문화재 지정여부	비고
1	佛谷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	대방동 1036-1	보물 제436호	統一新羅
2	佛谷寺 一柱門	대방동 1035 외 불곡사 내	도유형문화재 제133호	朝鮮
3	佛谷寺 碑石群			
4	昌原 南陽洞寺址	남양동 산9 일대		
3	昌原 加音丁洞 古墳群	가음정 산15	도기념물 제126호	三國
4	昌原 加音丁洞 金琪英永久不忘碑	가음정 아파트예정부지 내		朝鮮
5	昌原 加音丁洞 堂木	가음정 178		노거수, 민속

창원분지내 곳곳에 발달한 구릉성 산지 대부분에서 유적이 확인되고 있고, 가음정동 역시 낮은 구릉성 산지가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지석묘를 비롯한 주거지 등의 유적이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sup>40)</sup> 일찍부터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지역 일대는 창원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삼국시대의 취락지, 패총, 수전지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가음정은 고대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의 하부행정조직으로 바다와 인접한 작은 ‘浦’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보인다.

38) 창원시청 <가음정동 홈페이지 통계현황> 참조.

39) 『文化遺蹟分布地圖-昌原市』(창원대학교 박물관·창원시, 2005)와 <창원시청 홈페이지 문화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며, 유물산포지나 개인 사묘 등은 제외하였다. 기타 상세한 것들은 앞의 자료들을 참고하면 된다.

40) 『昌原市 文化遺蹟 精密地畵調查報告書』(1995), 『文化遺蹟分布地圖-昌原市』(2005, 이상 창원대학교 박물관·창원시) 및 『昌原加音丁洞遺蹟』(경남문화재연구원·창원시, 2000) 등을 통해 가음정동 유적들이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다.

이후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체제 변천관계는 알 수 없으나, 행정구역상 조선후기 까지 南面 관할이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 『戶口總數』에 ‘加應亭里’로 기록되어 있으며,<sup>41)</sup> 『慶尙道邑誌』 <昌原大都護府> 坊里條에는 관문으로부터 20리 쯤 떨어져 있는 南面道上 二運 관할의 7리 중 하나인 ‘加音亭里’이라는 명칭과 위치가 나타나 있다.<sup>42)</sup> 조선말기까지 창원부 지역이었으며, 대한제국 隆熙 4년(1910), 한 때 ‘마산부 상남면’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南面이 ‘上南面’과 ‘下南面’으로 분리되면서 ‘道上 一運, 二運, 三運’은 상남면으로 통합되었으며, 1914년 군·면통폐합 개편으로 ‘창원군 상남면 가음정리’로 개편되었다.<sup>43)</sup> 이 당시 통합, 개편된 행정구역명에 대해서는 『嶠南誌』 <昌原郡> 邑面町里洞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 상남면은 知貴里를 포함한 15개 리를 관할하였으며,<sup>44)</sup> 시기에 따라 ‘加音’이나 ‘加應’, ‘亭’이나 ‘丁’ 字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해방이후인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산시에 편입되어 ‘남부출장소’ 관할이 되었으며, 1976년 ‘창원지구출장소 용지소’ 관할로 되었다. 1980년 창원시로 되면서 가음정동, 남산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97년 인접한 대방동 일부를 통합하여 행정동인 ‘창원시 加音丁洞’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창원시의 民俗과 문화행사

창원시에도 다양한 민속행위나 놀이가 전해오고 있으니, 전승되고 있는 것에는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많다. 이 중 무형문화재와 의식과 놀이, 민요와 설화, 동제의 사례 및 문화행사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5)</sup>

창원시의 특색 있는 전승놀이로는 <文昌祭> 놀이(도무형문화재 제5호)가 있다. 이 놀이는 조선 仁祖 14년(1636) 丙子胡亂 때 순절한 黃是憲 공의 제향과 그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짜임새는 제1과장 祭享, 제2과장 追悼舞, 제3과장 軍奴놀이, 제4과장 埋鬼굿 놀이로 구성된다. 문창제놀이는 예능을 주로 하는 놀이라기보다 忠臣을 기리는 추모의 내용이다. 추도무와 군노놀이는 제향의 뜻에 부합되고 있으며,

41) 『戶口總數』 <慶尙道 昌原> 坊里條.  
坊里…(중략)…南面 加應亭里……(하략).

42) 『慶尙道邑誌』 <昌原大都護府> 坊里條.  
坊里…(중략)…南面道上…(중략)…二運 在府南距官門二十里…(중략)…加音亭里……(하략).

43) 조선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창원시 면단위 행정구역명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연구』 (경남대학교 지역문제연구소 편, 1997, pp. 52~53)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면 된다.

44) 『嶠南誌』 卷之七十一 <昌原郡> 邑面頂里洞條.  
邑面頂里洞…(중략)…上南面 知歸里 西谷里 盤松里 鳳林里 退村里 龍洞里 鶴池里 吐月里 沙巴丁里 南山里 大方里 加音丁里 三丁子里 佛母山里 遷善里……(하략).

45) 창원시에 전승되고 있는 民俗에 관한 자료는 풍부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昌原郡誌』(창원군지편찬위원회,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昌原市史』(창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창원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 여러 곳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매구굿도 판굿에다가 황공의 순절과정을 삽입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 및 의의가 크다. 푸짐한 제물을 진설하고 황공의 위패를 모신 후 부사와 관속들이 제사를 모신다.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례하고 다음은 부녀자들이 예전에 官妓들이 하던 살풀이 춤을 추어 고인의 한을 풀어준다. 이어지는 군노놀이 는 황공의 순절과정을 무언극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매구굿은 온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장면으로 농악대와는 달리 남녀노소 모두 평복차림으로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가무한다. 이 외에 <창원 오광대놀이>가 최근 복원되어 전승되고 있다.

창원시에는 전통문화가 행사로 승화된 <冶鐵祭>를 비롯한 비음산과 천주산의 <진달래 축제>, <민속투우대회> 등의 문화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冶鐵祭>는 매년 4월 1일 창원시로서의 승격을 기념하고, 시민화합의 한 마당으로 성산패총의 야철지와 창원광장에서 행해진다. 창원지역은 고대 弁韓 12국 중의 하나에 속하였으며, 양질의 철을 생산하여 찬란한 철기문화를 이루었던 지역으로, 옛날 철을 다룬 유적인 冶鐵址에서 선조들의 혼과 지혜를 오늘날의 축제로 승화시켜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짜임새는 야철제례 때 초혼무를 시작으로 씻물헌납, 기원무, 제례, 천도무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뒷풀이는 전통놀이인 <강강수월래>와 <농악한마당> 등 다양한 민속행사로 이어진다. 이 외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북면 화천리의 달집, 땅따먹기, 제기차기, 꽃놀이, 건치치기(나무로 못치기), 팽이(공개)치기 등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다양한 민속놀이들이 전승되고 있다.

동제는 洞虞祭라고도 하는데 우리 민족 고유의 전승의식이다. 주로 마을의 무사 태평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이며 마을의 전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의식이다. 창원지역 인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木神祭는 마을의 老巨樹를 신격화하여 지내는 제사인데, 확실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옛날 樹木崇拜의 사상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방리의 엄나무에서 행해진다. 堂山祭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主山에 神堂을 짓거나 노거수 아래에 암석을 神壇으로 하여 제사를 행하는 것인데, 이는 산신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다. 목동 느티나무 아래서 매년 정월에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이러한 동제들은 아직까지 마을 전체의 안위가 달려있다고 여겨 매우 신성시되고 있으며, 엄격하고 성대하게 치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신당 역시 매우 신성시하여 제를 모실 때를 제외하고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東畵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속들이 전하고 있다. 이 중 특색 있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신방 목신굿>이다. 이 놀이의 연원은 알 수 없으나, 옛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농악을 계승한 것으로 마을신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洞祭의 하나인 木神祭·堂山祭, 그리고 地神밧기와 결부된 전통적인 풍물놀이로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마을 뒷산(신방초등학교 뒤편)의 엄나무(일명 음나무, 명구나무, 개드릅나무

등으로도 불리며, 천연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되어 있다) 아래에서 마을의 액운을 쫓아내기를 기원하며 행해진다. 이 엄나무는 마을의 靈木으로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알려져 지금도 무속신앙과 관련된 곳이 행해지기도 한다. 또한 이 때 행해지는 <地神밧기>는 영남지방에서 정월 대보름 전후하여 행해지는 일종의 가장행렬의 성격을 지닌 민속놀이이다. 신방리에서는 먼저 부엌으로 가서 福祿을 준다는 조왕신을 모시 다음, 성주신을 위한 성주풀이, 대지의 안정을 위한 土主神이 머무는 장독대에 가서 농악을 올린다. 이렇게 삼신에게 기원한 후 마당풀이로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신방줄다리기>가 들판에 나가 농악을 울려 흥을 돋우며 행해지는데, 이 때 상쇠가 쇠를 얼마나 잘 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힘을 더 내기 때문에 아무나 쇠를 잡지 못하게 한다. 이 외 여러 민간신앙과 민속놀이들이 전승되고 있다.

또한 창원일대에는 많은 민요와 설화,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민요로는 <모찌기, 모내기노래>, <시집살이 노래>, <처녀총각 결혼노래> 등 다양하다. 이 중 조사지역인 신방리에 전승되고 있는 것들로는 <모찌기, 모내기노래>, <형부와 처제>(이상 신방리 모암), <보리타작노래>, <객귀물림노래>, <옛타령>, <방구타령>, <각설이타령>(이상 신방리 신방), <모내래>, <김매기노래>, <청춘가>(이상 신방리 산남) 등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설화 및 전설의 경우, <황희정승>, <곡안의 유래>, <동래정씨 이야기>, <달음산과 쥐나리>, <도깨비와 백말피>, <우스개소리-낙거리>(이상 신방리 신방) 등이 전하고 있으며, 지명이나 인물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창원지역을 本貫으로 하는 姓氏로는 과거 의창지역의 孔·黃·朴·玄의 4성과 來姓으로 金·許·鄭氏 등이 있었다고 하며, 회원지역은 甘·兪·鄭·玄의 4성과 來姓으로 金·文氏 등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창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분포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 3)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sup>46)</sup>

조사지역인 ‘加音丁(洞)’의 어원은 순우리말 ‘더음쟁이’, ‘덤쟁이’에서 파생되었다. 고대에는 성산마을까지 해변이었으며, 인접한 가음정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이 때 바닷물에 밀려 온 “해조류가 쌓여 거름더미가 두엄을 형성하였다”고 하여 두엄<sup>47)</sup>의 준말인 “덤”으로 전이하였으며, 다시 ‘더엄(더음쟁이)’을 거쳐 ‘덤정’으로 파생되어 ‘加音丁[더음정]’이라는 한자명이 되었다. 한편 ‘加音’은 ‘덤’의 차자표기로 ‘加’의訓 ‘더하다’와 ‘音’의 자음인 ‘口’이 합쳐져 전이된 형태로 보고, 다시 덤의 ‘더’는 “북쪽”을 뜻하는 우리말 ‘들~드르’의 변이형태이며, 받침 ‘口’은 ‘산’을 뜻하는 ‘뢰’의 변이형태일 것으로 생각하여 “북쪽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에서 지명이

46) 조사지역에 전승되는 지명에 대해서는 『昌原市史』(창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지명총람10-경남 I』(한글학회, 2000), 및 『昌原都護府圈域 地名研究』(민공기, 경인문화사, 2000) 등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기타 상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기의 자료들을 참고하면 된다.

47) 풀이나 짚 또는 동물들의 배설물(똥, 오줌)이나 해조류, 쓰레기 등을 섞힌 거름을 말한다.

연유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48)</sup> 이곳에 전승되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과 관련 있는 전승지명으로 가음정에서 서쪽으로 나지막한 산 아래에 “옛날에 못이 있었다”고 유래된 ‘못-안’마을이 있으며, 가음정을 기준으로 위치상 중앙에 ‘中-部’마을이, 동쪽에 ‘東-部’마을이, 서쪽에 ‘西-部’마을로 불리우는 자연마을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산, 바위와 관련된 것으로 가음정 서북쪽에 “당제를 모셨다”고 하여 ‘당-산’으로 불리우며 고대 冶鐵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낮은 산이 있으며, 북쪽으로 ‘가음정-뒤산’과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다”고 전하는 ‘가장-골’로 불리우는 산이 있다. 그리고 가장골 위쪽에 있는 마을의 동쪽에 생김새가 마치 “자라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자래-바우(바위)’가 있다.

들이나 밭, 터, 못자리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가음정 동남쪽에 ‘짐대-글’이라는 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 배에 짐을 싣던 곳”으로 전하며, 가음정 북쪽에 “왕죽(竹)이 많았다”고 하여 유래된 ‘굴대-밭’이 있다. 또한 “옛날 장자라는 부자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장자동’으로 불리우는 터[址]가 있는데, 이전에 이곳에서 기와조각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못안마을 서쪽에 “옛날 칠원에 살던 사람의 소유인 땅”이라 하여 ‘칠원-땅’으로 불리우는 못자리가 있다. 이 밖에 가음정 동쪽에 ‘가음정-못’이, 가음정못 동쪽으로 ‘자래바우’로 불리우는 못[池]이 있으며, 가음정 북쪽에 ‘음달-보’, 남쪽에 ‘기역자-보’로 불리우는 湫가 있고, 음달보 옆에는 “옛날에 물방아간이 있었다”고 전한다. 한편 가음정 동쪽에는 “옛날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읊미하던 곳으로, 귀중한 문헌들이 많았었지만 분실되어 사라졌다”고 전하는 ‘逍遙亭’으로 불리웠던 정자가 있었으며, 가음정 중앙에 수령 약 1,000년이 된 ‘근포구-나무’로 불리우는 노거수가 있는데, 둘레가 어른 다섯 명의 아름드리 정도이며, 높이는 약 15m 정도이다. 마을에 홍사가 있거나 홍수가 났을 때 소리가 났다고 전한다.

####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상으로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623번지 일원인 가음정지구 개발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문헌적·고고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번 지표조사는 구릉 말단부(1구역)와 주택밀집지역(2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릉 말단부인 ‘1구역’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및 조선시대 자기류·기와편이 수습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 유구가 유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1구역’의 약 38,000㎡에 대해서는 정밀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8) 閔肯基, 『昌原都護府圈域 地名研究』, 경인문화사, 2000.

그리고 현재 형상 변경으로 조성된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매장문화재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유구나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지역과 이어지는 동일한 구릉 지역내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매장문화재가 조사되었다.

특히, 2006년 우리 연구원에서 연접된 구릉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한시대 주거지 그리고 삼국시대 수전지 및 조선시대 분묘 등이 밀집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을 비롯한 조사대상지역 전체는 오랜시기부터 인간의 생활터전으로 활용되어 매장문화재가 유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으로 마을이 형성된 ‘2구역’을 중심으로 약 46,000㎡에 대해서도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여부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조사대상지역내 당목이 위치한 ‘3구역’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이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존 또는 이식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조사구역내 유적 일람표

번호	유적명	위치(G P S)	수습유물	추정 시대	면적(㎡)	비고
1	유물 산포지	‘1구역’ N 35°12'38.8" E 128°41'20.4"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백자 및 기와	삼국시대 ~조선시대	38,000	정밀시굴
2	가음정동 본동	‘2구역’ N 35°12'25.3" E 128°41'28.5"	.	삼한시대 ~조선시대	46,000	표본시굴
3	가음정동 당목	‘3구역’ N 35°12'30.3" E 128°41'30.5"	.	조선시대 민속자료	.	보존 또는 이식

##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戶口總數』  
『嶠南誌』  
『後漢書』東夷傳  
『三國志』〈魏書〉東夷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 1, 2, 3』, 1981.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慶尙南道民俗集』, 199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菴山文化遺蹟』, 1992.  
昌原市·昌原大學校博物館, 『昌原市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1995.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1997.  
昌原市史編纂委員會, 『昌原市史』(上)·(下), 1997.  
閔肯基, 『昌原都護府圈域地名研究』, 景仁文化社, 2000.  
昌原大學校博物館, 『昌原 遷善洞 古墳群』, 2000.  
昌原市·慶南文化財研究院, 『昌原 加音丁洞遺蹟』, 200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8-경남편 I』, 200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1-총설』, 2002.  
昌原市·慶南文化財研究院, 『昌原 進禮山城』, 2003.  
-----, 『昌原 聖住洞遺蹟』, 2003.  
昌原市·昌原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昌原市』,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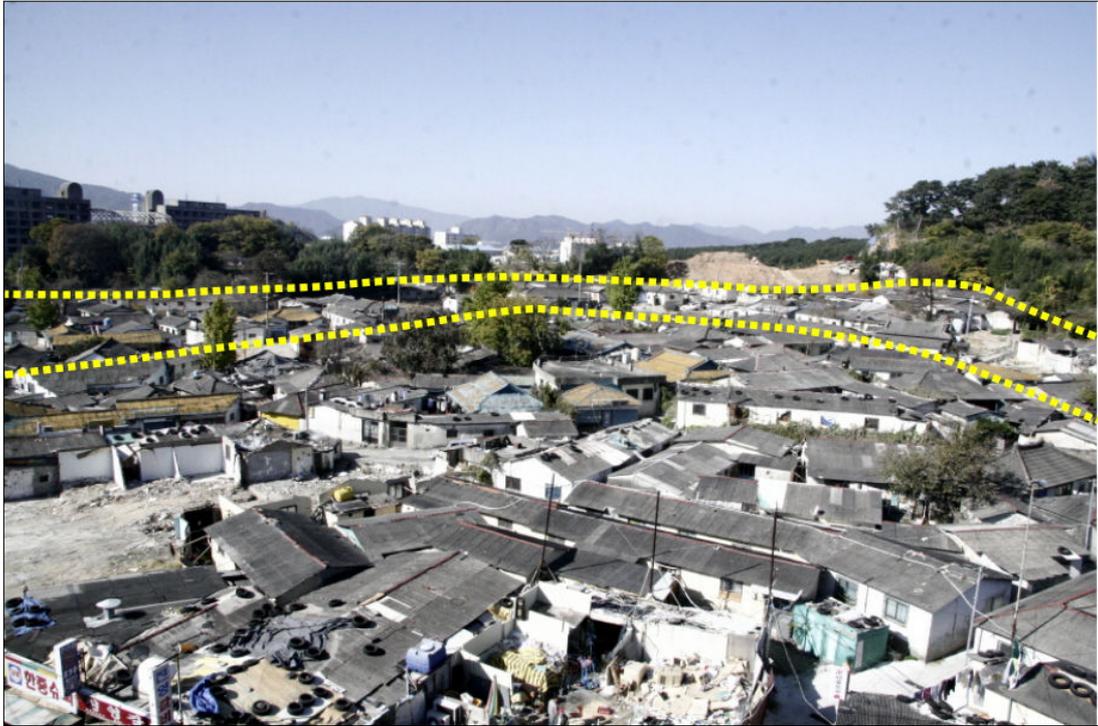
# 圖 版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북)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인접 가음정동 유적군 전경(남→북)



도판 3. 조사대상지역(1구역, 유물산포지) 전경(남서→북동)



도판 4. 1구역내 지표수습유물



도판 5. 조사대상지역(2구역) 근경(남→북)



도판 6. 조사대상지역(3구역) 당목 전경(동→서)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地表調査報告 第83輯

창원 가음정지구 개발사업구간내

##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

인쇄일 / 2007년 11월 29일

발행일 / 2007년 11월 30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2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mailto:feaci03@hanmail.net)

인쇄처 / 부광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

---